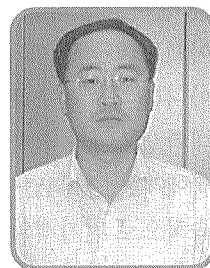


디지털과 도서관의 만남

- 전자책을 중심으로



전 현 수*

요즘 한국은 디지털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전자분야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였다는 뉴스가 TV를 통해 나오고 전 세계가 한국의 앞선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앞 다투어 한국을 찾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도서관에서는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없으면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용자들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욕구에 발맞추어 도서관에서도 여러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변화하는 도서관의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도서목록의 전산화로 자료 검색이 용이해졌으며, 잡지를 디지털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일반 도서를 전자책이라는 형태로 제작, 보급하여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읽고자 하는 도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거나 대출을 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지고 있다.

처음 전자책 형태의 도서를 접하면서 과연 이러한 매체 형태의 도서가 현재의 책자 형태의 도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그와는 반대로 책자 형태의 도서로서는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모든 전자책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첨부하여 제작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외국어나 음악이론 및 청음훈련 아니면 미술학습 등 책자 형태의 도서를 통해 학습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에 전자책 형태의 도서는 컴퓨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첨부하여 책자 형태의 도서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시각적, 청각적인 방법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 '정말 잘 나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사서과 수서 주임, hsjeon@hufs.ac.kr

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책자 형태의 도서가 주는 매력과 전자매체의 도서가 줄 수 없는 책만의 고유한 장점이 다르지만 말이다.

우리 대학은 언어계통의 학과들이 많이 있어 처음 전자책을 접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대학교는 20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전국 어디나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매우 막강한 국력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 PDA, PDA 폰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장비가 보급됨으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전자매체의 도서를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2004년부터 양질의 전자책을 선별, 수서하여 이용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전자책의 장서량을 확충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에 대해 호기심으로 접근을 해보지만 책자 형태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도서장서량과 다양한 주제의 폭넓으면서도 심도 있는 전자책이 확보되어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전자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자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이용해 보면 편리한 대출, 반납 기능,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 때문인지 전자책의 이용 빈도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용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와 장서량의 확충이 필연적인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 도서 및 비도서의 확충을 통해 만족할 만한 이용자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에 현재 출간된 전자책 중에서 자관의 실정에 적합한 도서를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자책을 제작하는 사업체의 사업성 문제임으로 제작회사에서는 어떠한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려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더군다나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책자 형태의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려면 저작자와의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자매체로 옮기는 시간적인 지연등 여러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전자책을 제작 보급하려는 사업체에서는 과연 출간이 지연된 전자책의 보급으로 사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에 언급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여러 업체가 전자책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전자책의 쓰임새에 대해 고민하고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전자책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이용의 편리함과 유익성을 계속적으로 인식함으로 해서 여러 주제분야의 도서가 전자책으로 출간되리라 예상이 되고 조만간에 일반도서와 동시에 같은 날짜에 출간되리라 여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 전자책을 대출,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간편해지고 전자책을 읽는 리더 또한 현재보다 그 기능이 보완되고 더욱 많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첨가되어 여러 형태의 이용자계층-

예를 들어 아동, 노인들 및 장애우들-들도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자책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인 장서의 확충 및 보관이 있는데, 현재 도서관들은 늘어나는 장서량에 맞추어 도서관 서고를 확충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자책 형태의 도서를 통하면 부족한 서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소설류나 전집류 같은 권수가 많은 도서의 신청 시 전자책을 구입하여 부족한 서고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끝으로 전자책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학문분야에 양질의 전자책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전 같으면 휴가를 갈 때 무거운 책을 챙기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읽고자 하는 전자책을 대출해서 책이 아니라 간편하게 노트북이나 PDA를 가지고 산에서 바다에서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덧 봄이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동물이나 식물도감의 전자책을 빌려 봄을 맞으러 야외로 나가 보아야 할까 보다. 